

우리 사회에 ‘사회’가 있는가? - 서구 ‘사회’ 개념의 국내 수용 과정 분석*

김 재 인

(경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 국문초록

19세기 중엽, 중국, 일본, 한국 같은 동아시아 국가는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강제 개항의 여파로 서구의 학문, 기술, 제도의 우위를 인정해야만 했다. 서구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서구의 주요 개념을 번역할 수 있게 해줄 상응하는 개념과 현실이 없었다는 점이었다. 가령 동아시아 국가에는 ‘사회’와 ‘개인’이라는 개념도 현실도 없었다. 그래서 이들은 유사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어들을 발명하려고 노력했다. 서구와 같은 ‘근대 국가 만들기’라는 노력은 결국 실패했는데, 이는 동서양 전통과 역사의 차이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와 ‘개인’이라는 개념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이 꼭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이들 서구 개념 역시도 근대 서구의 발명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부르주아 자본가에게 도움이 될 뿐이다. 따라서 서구 근대 시기에 생겨난 공지를 돌파하려면 대안적 비전을 담은 ‘새로운’ 개념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사회, 개인, 번역, 개념, 근대, 서구, 동아시아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68919).

** 본 논문은 2019년 5월 31일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가 주최한 <갈등과 분열의 한국사회와 ‘공동체’의 재구성>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 증보한 것이다. 당시 좋은 논평을 해준 성균관대 김진균 선생께, 그리고 격려와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께도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No man is an island,
Entire of itself.
Each is a piece of the continent,
A part of the main.
— John Donne

사회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의 합을 표현한다.
— 칼 맑스, 『정치경제학 비판 요강』

I. 문제

1. 언어 사용의 난맥상

현재 한국 사회의 난맥상 중 중요한 문제들은 갈등하는 세력들이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데서 생겨났다.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서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다. 외교 기밀 유출이 ‘공익’이라고 주장 되는 지경이다.¹⁾ 분명 걸으로는 한국어를 쓰는 것 같은데, 서로 알아듣지 못하고 대화도 성립하지 않는다.

들뢰즈와 과타리에 따르면, 언어활동은 의미 전달과 소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언어란 본질적으로 “명령어(mot d’ordre)”이며 청자를 향한 행동의 촉구이다.²⁾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³⁾에 나오는 장면 하나를 보자. 동료가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앨런 튜링에게 말한다. ‘우리 점심 먹으러 가.’ 앨런이 ‘응’하고 대꾸하기를 몇 차례. 동료는 말한다. ‘같이 점심 먹으러 가겠냐고 몰었잖아.’ 앨런이 응대한다. ‘아니, 너희가 점심 먹으러 간다고 했지.’ 동료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앨런은 언어활동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 앨런

1) 이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2019년 5월 7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 통화와 정 상회담 내용(3급 외교기밀)을 공개하면서, 이를 ‘국민 알권리’라고 둘러댄 사건에서 잘 드러난 바 있다.

2)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Milles Plateaus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Miniut, 1980. 특히 4번째 고원.

3) 모튼 틸덤 감독, 베네딕트 컴버배치(앨런 튜링 역) 주연, 2014.

은 동료의 말을 곧이곧대로 '그래, 너희가 밥 먹으러 가는구나'라고 이해했다. 물론 동료는 '같이 밥 먹으러 갈래'라고 말했던 것이다. 이렇듯 모든 언어활동은 본질적으로 '수행문(performative)'이다.

언어활동의 명령적 측면, 수행적 측면의 바탕에는 최소한의 의미 공유가 요청된다. 같은 낱말을 전혀 다른 뜻으로 알아들으면 곤란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는 그 최소한의 의미 공유도 없는 것 같다. 제각각 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쓰고 있다. 그렇다고 언어 정화운동을 하자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2. '사회'와 '공공성'

이런 상황에서 학자로서는 자꾸 깊게 물을을 던지는 수밖에 없다. '공익'이 무슨 뜻일까? 사실 이런 사회과학 개념은 답하기 몹시 어렵다. 누구에게 이익이 될 때 공익일까? 흔히 말하듯 국민에게? 그러나 국민이라는 실체는 없다. 국민은 법적 개념일 뿐,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군가가 항상 국민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다. 함께 살아가면서도 불법체류자나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서 배제되는 인구도 많다. 이렇게 국가와 구분되는 삶의 영역을 '사회'라는 개념으로 지칭할 수 있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사회란 가령 '글로벌 사회' 같은 표현에서 지칭되는 것처럼 국가보다 넓은 개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하위 개념으로서 '시민사회'처럼 근대적 역사성을 가진 사회를 가리킨다. 그런 점에서 공익은 사회 구성원, 즉 '개인'들의 이익이라고 답변될 수도 있으리라. 그러나 모든 개인들의 이익이란 허상이다.

한 사회 속에는 이익이 상충하는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모두의 이익'은 성립할 수 없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어느 한 편의 이익은 다른 편의 손실이거나, 한 편의 큰 이익은 다른 편의 작은 이익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처럼 이익 또는 더 넓은 의미에서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활동(authoritative allocation of values)이 정치이다. 그렇기에 정치학적 맥락에서 공익이란 특정 세력의 이익을 듣기 좋게 포장한 수사에 불과하다. 그렇더라도 외교적 사안은 국민 전체의 문제이며, 따라서 국익으로서의 공익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더 곤란한 개념은 '사회'이다. 국가가 법과 정치의 영역이라면, 사회

란 무엇인가? 국가와 거의 혼동해서 사용하곤 하지만 실제로는 구별되는 영역인 사회는 서구로부터 처음 그 개념이 전래되던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또렷한 의미를 얻지 못했으며 그 현실적 실체도 불분명하다. 그렇기에 우리 사회에 ‘사회’가 있(었)느냐는 물음을 던져야만 한다. 나아가 ‘공공성’과 ‘공익’의 장소로서 사회는 어떠한지 하는지도 물어야만 한다. 모두의 이익과는 구별되는 차원에서 여전히 공공성과 공익은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공공성보다 공정성이 강조되고 있는 세태를 보면, 과연 이 두 개념이 얼마나 적절하고 정당하게 이해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도 절박하다.

나는 이 글에서 1) ‘사회’ 개념의 수용 역사, 2) ‘사회’라는 실체의 부재, 3) ‘사회’에 채워 넣어야 할 의미 내용이라는 주제를 순서대로 살피려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참된 의미의 ‘사회’가 없음을 밝힐 것이다. 근대 개념을 수입하던 19세기 말부터 사회란 ‘이기적 개인들의 결사체’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고, 이런 이해가 끝내 교정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서구에서 처음 society 개념을 발명했을 때의 사정과도 다르며,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면서 society를 社會로 번역하던 사정과도 다르다. 하지만 원본과도 다르고 사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회’가 부재한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이 실현되는 장소로서의 사회가 아니기에 ‘사회’가 없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의 모습을 전망하는 출발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개념 번역의 역사

1. 힘에 의한 개항과 서구의 우위

동아시아 지역에서 근대 서구 문명의 수입은 힘에 의한 패배를 바탕으로 깔고 있다. 문물의 교역과 교류 수준에서 동아시아와 서구의 만남은 긴 역사를 갖고 있었지만, 정치 외교적 의미의 동서 간 만남은 19세기 중엽에 와서야 본격화되었다. 아편전쟁에서의 청의 패배나 페리 제독에 의한 일본 개항은 모두 힘에 의한 개방과 침공을 뜻했다. 이렇게 동아시아의 근대는 패

배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서구의 우위를 당연지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서구의 지식(과학)과 기술과 제도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서구 문명 앞에서 동아시아는 실력대결에서 패한 것이고 진검승부의 결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서구의 지식과 제도는 되도록 빨리 수용해서 적응해야 할 대상이었다. 시대적 흐름을 선구적으로 따른 것은 일본이었다. 중국이 무(武)에 비해 문(文)의 우위를 강조하는 중화의식에 여전히 안주하고 있던 반면, 아편전쟁의 결과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서구로 유학생을 보내고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서구식 근대화를 위해 서둘렀다. 크림전쟁과 남북전쟁을 치르느라 동아시아 진출이 지연된 서구열강의 사정은 일본에게는 시간을 벌 수 있는 행운이었다. 서구 열강이 잠시 주춤한 사이 일본은 서구에 맞설 힘을 갖추면서 문물을 적극 수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다.⁴⁾ 반면 조선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 과정에서 일본을 통한 서구 문물의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2. 개념과 현실의 괴리에서 생겨난 번역의 어려움

서양의 society나 individual이 일본 한자어 ‘社會’나 ‘個人’으로 번역된 사정과 과정에 대해서는 한국에도 꽤 많은 문헌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른바 개념사 연구에 해당하는 작업이다. 이런 연구의 선구에는 야나부 아키라(柳父章)의 역작 『번역어 성립 사정』(1982)⁵⁾이 있으며, 한국의 연구자들 대부분은 야나부의 작업에 크게 빚지고 있다.⁶⁾ 말하자면 서양 개념이 일본

4)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 책에서 이루어진 대담이 많은 정보를 주며 내용도 의미심장하다.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 2000.

5)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서혜영 옮김, 일빛, 2003 ; 『번역어의 성립』, 김옥희 옮김, 마음산책, 2011. 원문의 의미를 더 잘 옮기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서혜영의 번역을 전거로 삼았다. 이 책 외에도, 연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덜 참조되긴 했지만, 번역론과 관련한 야나부의 또 다른 책도 중요하다.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의 논리』, 이용덕 옮김, 불이문화, 2000.

6)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특히 문헌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후로 개념사 연구 논문의 양이 급속히 증가한 면이

에서 번역어로 정립된 후 한말 조선에 그대로 수용되었기에, 한국어 개념의 유래를 찾는 작업은 일본어 개념의 유래를 찾는 작업에서 시작해야만 했다. 야나부의 물음은 이렇게 집약된다.

“society라는 말은 매우 번역하기 어려운 말이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 society에 해당하는 말이 일본어에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하는 말이 없었다는 것은 일본에 society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없었다는 것과 같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사회’라는 말이 번역어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 즉 society에 대응할 만한 현실이 일본에도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⁷⁾

요컨대 야나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양의 개념에 대응하는 일본의 개념과 현실이 애초에 없었다는 자각이 최초의 고민을 낳았으며, 나아가 개념의 의미 내용을 일본에 건설하는 것이 절실했다. 이른바 ‘근대 국가 만들기’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있지만, 질적 측면의 진전은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크다. 김석근, 「19세기 말 ‘Individual(개인)’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하여」, 『국제문제연구』 제24호, 2002 ; 하영선 외, 2009, 『근대 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에 「근대 한국의 ‘개인’ 개념 수용」으로 재수록. 김석근,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재음미 - 개인-시민-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총집』 36, 2005. 김소영, 「윤치호의 ‘소사이어티(society)’ 개념 수용과 활동」, 한국사학보(72), 2018. 김주성, 「번역어로 살펴본 동북아문명」, 정치사상연구, 24(1), 2018. 김태진, 「근대 일본과 중국의 ‘society’ 번역 - 전통적 개념 속에서의 ‘사회적인 것’의 상상」, 『개념과소통』 제19호, 2017.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박명규,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 『사회와역사』 59, 2001 ; 이경규 외, 『개념의 번역과 창조 - 개념사로 본 동아시아 근대』, 2012에 「근대 한국의 ‘사회’ 개념 수용과 문명론적 함의」로 재수록.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양세욱,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인간환경미래 9, 2012. 최경옥, 「한국 개화기 외래 한자어의 수용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최경옥, 『한국개화기 외래한자어 수용 연구』, J&C, 2003. 최경옥, 『번역과 일본의 근대』, 살림, 2005. 최경옥,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에 대하여: [個人]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연구』 61-1, 2007. 최경옥,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 『코기토』 65, 2009.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society]가 [사회(社會)]로 번역되기까지」, 『비교일문학』 제39집, 2017.

7)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서혜영 옮김, 일빛, 2003.

일본에서 일단 정착된 개념이 중국과 조선으로 유입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나아가 같은 한자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유입은 큰 고민 없이 이루어졌다.⁸⁾ 한국의 연구자들은 그렇게 시발된 개념 수용의 역사를 개화기부터 식민지시기에 걸쳐 추적해 왔으며, 어떤 점에서 이 작업은 진행형이다. 나아가 해방 이후 그런 개념들의 정황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작업은 내 역량을 넘어서는 일로, 다른 연구자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많다.

3. 개화기 일본과 조선의 서구 개념 수용

일본의 개념 정립 과정과 조선의 그것을 비교하면 일정한 시차가 눈에 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능동적으로 필요한 것을 수용하려 노력했던 반면 조선은 일본이 수용한 것을 '재수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나아가 메이지 유신에서 패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일본은 일정한 수준의 능동성을 관철하며 서구의 개념을 현실화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었다. 반면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경술국치 이후로 조선은 주권상실이라는 정치적 파탄에 놓였으며, 해방 후에도 내전과 오랜 독재시절을 지나오며 개념과 현실이 괴리된 그런 현실을 살아야만 했다.

일본 사회과학의 형성부터 발전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다룬 이시다 다케시(石田雄)의 『일본의 사회과학』(1984)⁹⁾에 따르면, 일본 사회과학은 대략 일곱 단계에 걸쳐 사회과학의 주요 개념을 착목하며 변화를 겪었다. 신민(1860년대~1890년대 중반), 사회(1890년대 말~1910년 경), 민중(1910년대), 계급(1920년대~1930년대 초반), 민족(1930년대 중반~1940년대 초반), 인민과 대중(2차대전 종전~1950년대 말), 시민(1960년 이후) 등의 개념이 그것이다. 여기에 1910년대에 '개인'의 발견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탬 수 있다.¹⁰⁾ 일본 학계의 이런 자생적 발전은 주요 사회과학 개념을 서구 유향과

8) 이는 중국과 한국에서도 '카세트 효과'를 낳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러한 '카세트 효과'는 한국에 '사회' 개념이 숙고되지 못한 한 원인으로 보인다. '카세트 효과'에 대해서는 본 논문 III에서 논의할 것이다.

9) 이시다 다케시(石田雄),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역, 소하, 2003.

10) 이시다 다케시의 책이 번역되기 전 한영혜는 책의 개요를 소개하며, 나름의 비판적 해설을 덧붙였는데, 이를 통해 이시다의 소개가 가질 수 있는 편향을 바로잡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태생적 조건 때문에 일본 현실을 설명하는 데 한계를 지니기도 했지만, 서구의 개념을 일본 현실이라는 콘텐츠로 채워가려는 시도, 혹은 서구에서 유래했지만 불가피하게 변형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일본 어로서의 번역어를 정립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조선의 경우에는 대략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서구 개념의 수입과 해석이 시작되었다. 갑신정변의 14개조 정강(1884),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설립한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의 조선 유학생들이 펴낸 「친목회 회보」(1896), 독립협회의 『독립신문』(1897), 박영효의 「내정개혁에 대한 건백서」(1888), 유길준의 『서유견문』(1889), 천도교의 『만세보』(1906)와 『소년한반도』(1906), 『대한매일신보』(1906), 을사늑약 전후의 수신(修身) 교과서 등에서 ‘사회’와 관련한 초기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¹¹⁾

왔다.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흐름을 짚는다 1」, 『경제와사회』 12, 1991.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흐름을 짚는다 2」, 『경제와사회』 13, 1992.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흐름을 짚는다 3」, 『경제와사회』 14, 1992.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형성과 전개 - 성립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기까지」, in 한국사회사연구회, 『일본의 근현대사』, 1991.

- 11) 각 문헌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김석근, 같은 글, 2002. 김석근, 같은 글, 2005. 김소영, 같은 글, 2018.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갑신정변 회고록』, 조일문, 신복룡 편역,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김주성, 같은 글, 2018. 김태진, 같은 글, 2017. 김현주, 같은 책, 2013. 박명규, 같은 글, 2001. 박명규, 같은 책, 2009. 박영효, 김갑천 옮김, 「박영효의 건백서 -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 『한국정치연구』 2권, 1990. 박주원,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2004, in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박주원,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2005년 5월호. 박지영, 「복수의 ‘민주주의’들 - 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변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5집, 2014. 양세욱, 같은 글, 2012. 이경구 외,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012. 이예안, 「개화기의 루소 사회계약론 수용과 번역 - J.J. Rousseau Du Contrat Social 에서 中江兆民 『民約譯解』로, 그리고 『황성신문』 「로사민약」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0집, 2011. 이인화, 「1876년 이후 근대 한국의 민권 민주사상의 발전과정 - 동아시아 3국(한중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2007. 전상숙, 「근대 전환기 한국 사회과학 수용의 특징과 유산: 근대 국가 지향과 일본을 통한 간접수용」, 『아

III. 부재하는 현실과 '카세트 효과'

1.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하겠다는 후쿠자와 유키치의 원칙과 '카세트 효과'

서양 개념에 대응하는 일본 개념과 현실의 부재 앞에서, 먼저 시도되었던 것은 일종의 의역이었다. 후쿠자와 유키치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일본어”로 번역하겠다는 원칙을 관철했다. “뜻은 ‘맞춘다’는 말인데, 일본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좋을지 모르겠네.”라고 묻는 벗에게 후쿠자와는 다음과 같이 반문했다. “자네와 같은 이들은 서양 원서를 번역하는 데 한결같이 네모난 문자만 사용하려 하는데 그것은 어째서인가?” 여기서 말하는 “네모난 문자”는 한자를 가리킨다. 왜 일본어가 아닌 새로운 한자 번역어를 만들려고 하느냐는 것이다.¹²⁾

하지만 후쿠자와가 바랐던 “자연스러운 일본어로서 흠잡을 데 없는 번역어(譯字)”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서양에는 있는데 일본에는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고, 따라서 애초에 서양어에 해당하는 일본어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후쿠자와 자신도 나중에는 서양어를 ‘네모난 문자’로 번역하기에 이르렀다. 왜 후쿠자와는 자신의 원칙을 바꾸기에 이르렀을까?

야나부 아키라는 이렇게 ‘네모난 문자’로 번역이 이루어지고 나면 번역어가 “카세트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외래어 사용을 포함해 번역어의 오남용 문제가 지적되곤 하지만, 야나부가 보기에 그건 번역이 내포하는 본래적 특성이다. 즉, 번역어는 모국어가 갖고 있지 않은 의미들을 흡수해 새로운 어휘로 변모한다는 것이다.

시아연구』 16(2), 2013. 전상숙, 「한말 ‘민권’ 인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개인’과 ‘사회’ 인식에 대한 원형적 고찰: 한말 사회과학적 언설에 나타난 ‘인민’관과 ‘민권’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2012. 최경옥, 같은 글, 2002. 최경옥, 같은 책, 2003. 최경옥, 같은 책, 2005. 최경옥, 같은 글, 2007. 최경옥, 같은 글, 2009. 최경옥, 같은 글, 2017.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창비, 2012.

12)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서혜영 옮김, 일빛, 2003.

“말은 원래 ‘카세트’와 같은 것이다. ‘카세트’란 case 즉, 작은 상자로서 프랑스어에서 말하는 cassette이고, 보석상자라는 의미로 쓰인다. (...) 작은 보석상자가 있다. 그 속에 보석을 넣을 수 있다. 어떤 보석이라도 넣을 수 있다. 그러나 막 만들어진 상자에는 아직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보석상자는 밖에서 보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답고 매력 있다. 게다가 뭔가 들어있을 것 같다. 틀림없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기분이 들게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이 카세트와 비슷하다. 말 그 자체가 매력이다. 그리고 속에 깊은 의미가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사람들을 끈다. (...) 의미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말 자체가 매력이다, 라는 체험이 처음에 없었다면, 사람들은 결국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어는 우리에게 있어 새로운 말이다. 특히 번역을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카세트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말의 특이한 현상, 기능, 효과 등을 전부 포함해서 ‘카세트 효과’라고 부르기로 한다.”¹³⁾

2. 번역어로서의 ‘사회’와 ‘개인’

메이지 초기에 일본 지식인들은 서구의 개념들을 일본어로 번역하려는 시도 속에서 ‘카세트 효과’를 지닌 신어(新語)를 지어냈다. 개중에는 전에 쓰이던 용어도 있었지만, 일단 번역어로 정립되고 나면 의미는 완전히 바뀌었다.

가령 ‘社會’는 중국 고전에서는 ‘봄·가을에 신령을 맞이하기 위해 벌이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명(明)대에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여 조직한 조직이나 단체’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던 낱말이었지만, 오늘날 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社會는 society의 일본어 번역을 그대로 쓰는 것에 불과하다. 오늘날 society를 보면 동아시아인은 그 즉시 ‘사회’라고 옮긴다.¹⁴⁾

13)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의 논리』, 이용덕 옮김, 불이문화, 2000.

14) society를 ‘사회’로 번역하게 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석근, 같은 글, 2002. 김석근, 같은 글, 2005. 김주성, 같은 글, 2018. 김태진, 같은 글, 2017. 김현주, 같은 책, 2013. 박명규, 같은 책, 2009. 박주원, 같은 글, 2004. 박주원, 같은 글, 2005. 야나부 아키라, 같은 책, 2000. 야나부 아키라, 같은 책, 2003. 양세욱, 같은 글, 2012. 전상숙, 같은 글, 2012. 최경옥, 같은 책, 2005. 최경옥, 같은 글, 2017.

한편 사회에 대응하는 낱말로써 독립적이고 자유롭고 평등한 '個人'도 동아시아에는 없던 개념이다. '개인'은 중국에서 1840년대에 individual의 번역어로서 사용했던 '獨一人'을 메이지기 후쿠자와 유키치(『문명론의 개략』, 1875)가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해서, 1890년대 '一人'을 거쳐 '個人'으로 최종 정착해서 오늘날까지 쓰이고 있다.¹⁵⁾

이 사정을 야나부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의 일본인들은 individual이란 말의 뜻을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것은 society란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individual과 society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말이다.” 즉 society도, society의 구성요소로서의 individual도 일본에는, 나아가 동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래서 대응되는 언어를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기에, 일종의 빈 기호로서 '사회'와 '개인'이라는 말을 발명해야만 했었다는 말이다. 그 말들은 그 후로 카세트 효과를 산출하기 시작했다.

IV. 개념 구현의 실패, 그리고 반전

1. 한국 사회에서 '사회' 및 '개인' 개념에 대응하는 현실 내용의 부재

일본에는 개념에 맞춰 현실을 만들어내려는 자생적 시도가 이어졌다. 물론 그 결과까지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편 조선은 뒤쳐진 수용과 국권 상실이라는 조건 때문에 개념의 의미 내용을 채우고 그에 맞는 현실을 만들려는 시도가 좌절되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사회'가 있느냐, 혹은 '개인'이 있느냐, 하는 물음은

15) individual을 '개인'으로 번역하게 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김석근, 같은 글, 2002. 김석근, 같은 글, 2005. 김소영, 같은 글, 2018. 김주성, 같은 글, 2018. 박명규, 같은 책, 2009. 박주원, 같은 글, 2004. 박주원, 같은 글, 2005. 사쿠타 케이이치, 『한 단어 사전, 개인』, 김석근 옮김, 푸른역사, 2013. 야나부 아키라, 같은 책, 2000. 야나부 아키라, 같은 책, 2003. 양세욱, 같은 글, 2012. 전상숙, 같은 글, 2012. 최경욱, 같은 책, 2005. 최경욱, 같은 글, 2007.

답을 얻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이 현실적 사례는커녕 어느 정도 정확하고 합의된 의미 내용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개념들이 전래된 이래로 우리 사회는 개념들을 천착하고 의미 내용을 합의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라 하겠다.

오랜 군주정과 계급사회를 거치긴 했어도, 수직적 위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 속에서 ‘개인’ 개념에 대한 이해는 구한말에 나름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채워진 의미 내용이란 고작 자신 또는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기적 개인에 불과했으며, 타인과의 공존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한편 ‘사회’ 개념은 더 어려웠는데, 대략 이기적 개인들의 결사체(會) 정도로 이해되었다고 여길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사회 전체에 대한 고려는 성립하지 않았으며, 이 사태는 현재까지 이어진다고 보인다. 이것이 서두에 언급한 난맥상을 낳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2. 서구 근대의 발명품인 ‘사회’와 ‘개인’

한국에서는 근대 개념을 수입하던 19세기 말부터 사회란 ‘이기적 개인들의 결사체’ 정도로 이해되고 있었고, 이런 이해가 끝내 교정되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렀다. 이는 근대의 출발점에서 서구인이 처음 society 개념을 발명했을 때의 사정과는 다르며, 서구를 추종하며 적극적으로 근대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개화기 일본인이 society를 社會로 번역하던 사정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서구의 society나 individual의 의미 내용을 충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아가 그에 대응하는 현실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이 실패라고 평가되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서구 사회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자괴감을 느껴야 할까? 그 실패의 결과로 우리는 ‘공공성’이나 ‘공익’ 같은 말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달하지 못하게 된 걸까? 서구화로서의 계몽이 필요한 시점일까?

우리 사회에는 ‘사회’가 없다. 원본과도 다르고 사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회’가 부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이 실현되는 장으로서의 사회가 아니기에 ‘사회’가 없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는 회복해야 할 개념도 아니고, 추격해야 할 개념도 아니며, 다만 이제부터 생성해야 할 개념이다. 그러하기에 한국과 서구의 낙차를 굳이 따져볼 필요도 없고, 서구에

비추어 한국의 비정상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나는 개화기 동아시아 국가들이 받아들여야 했던 현실과 개념은 '서양 근대 부르주아'의 산물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사실 '사회'나 '개인'은 16~18세기 홉스, 루소, 로크, 스미스 등을 거치며 형성된 '특수한' 개념이었다. 가령 홉스나 로크가 사회계약의 주체로 생각한 '자연 상태'의 개인은 이미 시장에 내던져져 있으며 화폐로 거래하는 인간이며, 저들이 상상한 '자연' 속에 있지 않았다.

사회 바깥에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개인이란 없다. 말하자면 (근대) 사회를 구성하기로 되어 있는 개인은 '아주 특수한 사회' 속 존재이다. 이 특수한 사회를 맑스는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1859)에서 간파한 바 있다.

“사실 상품들의 교환과정은 원래 자생적인 공동체들의 품 안에서 현상하지 않고, 그것이 멈추는 곳, 그것의 경계에서, 그들이 다른 공동체들과 접촉하는 소수의 지점에서 현상한다. 여기에서 물물교환은 시작되며 거기에서 공동체 내부로 침투해서 공동체에 해체적 영향을 미친다.”¹⁶⁾

'상품'의 성립, 즉 시장과 화폐를 통해 공동체가 해체된 후 특정하게 정립된 사회가 근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가 상상한 자연 상태이다. 그리고 이 속에서만 '추상적으로' 평등한 개인이 만들어질 수 있다. 맑스는 『자본』의 원고 한 곳에서, 맑스 자신이 관여했던 최종본인 프랑수아 번역본에 수록한 구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다양한 구체적인 사적 노동이 동일한 인간 노동의 추상으로 환원되는 것은 오직 교환을 통해서만 수행된다. 교환이 서로 다른 노동 행위의 생산물을 사실상 서로 동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MEGA II-6, p. 41)¹⁷⁾

이미 강제적으로 교환과 시장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추상적 개

16) 마르크스, 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김호균 역, 도서출판 중원문화, 2007 (1988).

17) 하인리히, 미하엘, 『새로운 자본 읽기』, 김강기명 옮김, 꾸리에, 2015.

인이 되게끔 강제된 사회가 먼저 있었다. 하지만 그 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자연이라고 부른 사회이다. 이렇게 상상의 결과로 가정된 ‘개인’들이 모여 사회계약을 체결하고, 그리하여 근대적 의미의 ‘사회’를 만든다? 요컨대 근대 사회계약론자들의 유산인 ‘사회’나 ‘개인’은 재고되고 비판되어야 할 개념이다.

3. 새로운 개념을 발명하기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로 여겨졌지만, 근대의 한계에 갇힌 개념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할지도 모른다. 이왕 개념 실현에 실패한 이상, 아니 어쩌면 개념 실현이 실패했다는 걸 행운으로 여기면서, 근대를 극복한 개념을 현실에 실현하려는 시도가 더 의미 있을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근대 서구가 발명한 ‘사회’나 ‘개인’이 전면 부정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그 개념들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기 위해 겪었던 근대 일반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그로부터 비판적 단서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것이 탈근대적 비판의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탈근대적 의미에서 ‘사회’나 ‘개인’은 어떻게 재가공될 수 있을까? 개념의 역사적 분석에만 머물지 말고 새 개념을 만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모색은 전통적인 의미의 낡은 공동체 개념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한다는 조건에서만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의 시인 존 던은 인간은 그 누구도 섬이 아니라 대륙의 일부라고 말했다. 근대 자본주의 비판의 한 정점인 칼 맑스는 사회를 제약 주체인 개인들의 모임으로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는 ‘개인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들의 합을 표현한다’.

다가올 사회는 어떤 관계를 표현해야 할까? 생물학적 재생산의 단위인 집단은 그 자체로 사회가 아닌 적이 없었지만, 서구 근대의 발명인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분명 특수한 종류의 관계를 표현할 뿐이다. 우리가 대안 공동체를 꿈꿀 수 있으려면 그건 오직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이리라.

■ 참고문헌

- 고병권, 『화폐, 마법의 사증주』, 그린비, 2005.
- 김석근, 「19세기 말 ‘Individual(개인)’ 개념의 수용과정에 대하여」, 『국제문
제연구』 제24호 ; 하영선 외, 2009,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
성사』, 창비, 2002에 「근대한국의 ‘개인’ 개념 수용」으로 재수록.
- 김석근, 「한국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에 대한 재음미 - 개인-시민-시민사
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총집』 36, 2005.
- 김소영, 「윤치호의 ‘소사이어티(society)’ 개념 수용과 활동」, 한국사학보
(72), 2018.
-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갑신정변 회고록』, 조일문, 신복룡 편역, 건국대학
교출판부, 2006.
- 김주성, 「번역어로 살펴본 동북아문명」, 정치사상연구, 24(1), 2018.
- 김태진, 「근대 일본과 중국의 ‘society’ 번역 - 전통적 개념 속에서의 ‘사회
적인 것’의 상상」, 『개념과소통』 제19호, 2017.
- 김현주, 『사회의 발견』, 소명출판, 2013.
- 르노, 알랭, 『개인』, 장정아 옮김, 동문선, 2002.
- 리우, 리디아, 『언어횡단적 실천』, 민정기 역, 소명, 2005.
-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번역과 일본의 근대』, 임성모 역, 이산, 2000.
- 마르크스, 칼,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 김호균 역, 도서출판 증원문화,
2007(1988).
- 마시니, 페데리코, 『근대 중국의 언어와 역사』, 이정재 역, 소명, 2005.
- 박명규, 「한말 ‘사회’ 개념의 수용과 그 의미 체계」, 『사회와역사』 59, 2001 ;
이경규 외, 『개념의 번역과 창조 - 개념사로 본 동아시아 근대』,
2012에 「근대 한국의 ‘사회’ 개념 수용과 문명론적 함의」로 재수록.
- 박명규, 『국민, 인민, 시민 -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 박영효, 「박영효의 건백서 - 내정개혁에 대한 1888년의 상소문」, 김갑천 옮
김, 『한국정치연구』 2권, 1990.
- 박주원, 「『독립신문』과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탄생」, 2004, in 이화
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 2004.

박주원, 「근대적 ‘개인’, ‘사회’ 개념의 형성과 변화 - 한국 자유주의의 특성에 대하여」, 『역사비평』, 2005년 5월호.

박지영, 「복수의 ‘민주주의’들 — 해방기 인민(시민), 군중(대중) 개념 번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5집, 2014.

반 뢰멘, 리하르트, 『개인의 발견』, 최윤영 옮김, 현실문화연구, 2005.

사쿠타 케이이치, 『한 단어 사전, 개인』, 김석근 옮김, 푸른역사, 2013.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의 논리』, 이용덕 옮김, 불이문화, 2000.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서혜영 옮김, 일빛, 2003 ; 『번역어의 성립』, 김옥희 옮김, 마음산책, 2011.

양세욱, 「동아시아의 번역된 근대 - ‘개인’과 ‘사회’의 번역과 수용」, 인간환경미래 9, 2012.

이경구 외,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012.

이시다 다케시(石田雄), 『일본의 사회과학』, 한영혜 역, 소화, 2003.

이연숙, 『국어라는 사상 - 근대 일본의 언어 인식』, 고영진 · 임경화 역, 소명출판, 2006.

이예안, 「개화기의 루소 사회계약론 수용과 번역 — J.J. Rousseau Du Contrat Social 에서 中江兆民 『民約譯解』로, 그리고 『황성신문』 「로사민약」으로」, 『일본문화연구』 제40집, 2011.

이인화, 「1876년 이후 근대 한국의 민권 민주사상의 발전과정 - 동아시아 3국(한중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 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근대계몽기 지식의 굴절과 현실적 심화』, 소명출판, 2007.

전상숙, 「근대 전환기 한국 사회과학 수용의 특징과 유산: 근대 국가 지향과 일본을 통한 간접수용」, 『아시아연구』 16(2), 2013.

전상숙, 「한말 ‘민권’ 인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개인’과 ‘사회’ 인식에

- 대한 원형적 고찰: 한말 사회과학적 언설에 나타난 '인민'관과 '민권'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3(2), 2012.
- 정하미, 『일본의 서양문화 수용사』, 살림출판사, 2005.
- 최경옥, 「번역의 일본어 - 東京: 中央文庫, 2000년 간행」, 『한양일본학』 제9집, 2001.
- 최경옥, 「언어의 보석상자, 번역어 -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의 논리』, 『한양일본학』 제10집, 2002.
- 최경옥, 「한국 개화기 외래 한자어의 수용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최경옥, 『한국개화기 외래한자어 수용 연구』, J&C, 2003.
- 최경옥, 『번역과 일본의 근대』, 살림, 2005.
- 최경옥, 「메이지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에 대하여: [個人]을 중심으로」, 『일어일본학연구』 61-1, 2007.
- 최경옥, 「메이지시기의 번역어 성립과 한국 수용」, 『코기토』 65, 2009.
- 최경옥, 「메이지기, 번역한자어의 성립과 한국 수용 고찰 - [society]가 [사회(社会)]로 번역되기까지」, 『비교일본학』 제39집, 2017.
- 코모리 요이치, 『일본어의 근대 - 근대 국민국가와 '국어'의 발견』, 정선태역, 소명출판, 2003.
-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창비, 2009.
- 하영선 외, 『근대한국의 사회과학 개념 형성사 2』, 창비, 2012.
- 하인리히, 미하엘, 『새로운 자본 읽기』, 김강기명 옮김, 꾸리에, 2015.
- 한영혜, 「일본 사회학의 형성과 전개 - 성립에서부터 제2차 세계대전기까지」, in 한국사회사연구회, 『일본의 근현대사』, 1991.
-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흐름을 짚는다 1」, 『경제와사회』 12, 1991.
-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흐름을 짚는다 2」, 『경제와사회』 13, 1992.
- 한영혜, 「일본 사회과학의 흐름을 짚는다 3」, 『경제와사회』 14, 1992.
- 히구치 요이치, 『한 단어 사전, 인권』, 송석원 옮김, 푸른역사, 2013.
-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Milles Plateaus -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Miniut, 1980.

❖ ABSTRACT

Is there ‘society’ in Korean society?
– *An analysis of the Korean reception of the
Western idea of ‘society’*

Kim, Jae-Yin
Kyung Hee University

In the mid-19th century, in the wake of the coercive opening of ports by imperialist powers, East-Asian countries like China, Japan, and Korea began to perceive that western sciences, technologies, and institutions were superior to their own. The most difficult aspect of interacting with western civilizations and cultures was the absence of the corresponding concepts and realities in East Asia, which could have facilitated the translation of the key concepts in these western cultures. For example, there was neither the concept nor the reality of ‘society’ or the ‘individual’ in East-Asian countries. Thus, new terms that could carry similar meanings were invented in these countries. Their efforts to make ‘modern nations like West’ ultimately failed becaus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Eastern and Western ways of life. However, these failures were not necessarily negative, as the Western concepts of ‘society’ and the ‘individual’, which were inventions of the modern West, would eventually serve to facilitate the rise of bourgeois capitalists. Therefore, it is our task to create new concepts comprising alternative visions that can be used to break through the impasse caused by the West during modern times.

Key Words : society, individual, translation, concept, modern, West, East Asia

■ 논문접수일 : 2019. 08. 10

■ 심사완료일 : 2019. 09. 01

■ 게재확정일 : 2019. 09. 03